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한달 점검

환승·'콩나물 버스' 가장 불편

기사 친절해지고 대중교통 연계 이용 편리

도심상권 배려·급행간선 확대 등 과제 산적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한 달이 됐다. 하지만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은 지난해 12월21일 시내버스준공영제 시행 이전 시기와 비슷한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다. 2~3번씩 갈아타야 하는 환승 불편, 들쭉 날쭉한 배차간격, 일부 간선노선에 승객이 몰리는 '콩나물 시루' 현상이 극심한데다 방학까지 겹쳐 승객들이 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대중교통 이용 늘었나=광주시에 따르면 노선개편 이후 지난 16일 현재까지 하루 평균 시내버스 이용객 수는 37만9천270명으로 지난해 1월 평균보다 5.2% 늘었다. 하지만 시내버스·지하철·마을버스 등 전체 대중교통 이용률은 교통카드 이용건수로 볼 때 지난해 12월 20일보다 20% 줄었다. 당초 40만3천551명에서 33만4천614명으로 격감한 것이다. 〈표〉

반면 교통카드 이용률은 71.9%에서 79.8%로 급증했다.대중교통 이용자의 20%(8만 명)인 학생들이 방학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준공영제의 제1목표인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가 시행 초기부터 차질을 빚고 있는 셈이다. 대구는 87만여 명이던 대중교통 이용객이 지난해 3월 19일 준공영제를 시행한 지 한 달만에 하루 106만 명을 넘어서 대조를 이뤘다.

◇편리해졌나=불편해졌다는 목소리가 더 높다. 한번에 가던 노선을 2~3번에 갈아타고 가도록 노선을 곧게 펴고 짧게 잘랐으나, 출퇴근 시간에 교통체증으로 인해 배차 간격이 벌어지면서 환승 시간이 늘어나 개편 전 30분이면 갈 수 있던 거리도 1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아우성이다. 배차간격도 늘쭉 날쭉이다.

광주시의 조사결과 금남 55번의 경우 15분이어야 할 배차간격(오전 7시~10시)이 시행 첫날 19분대였다가 20일에는 22분까지 올라가는 등 단 한차례도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했다.

시가 노선별 수요와 공급을 맞추지 못해 일부 노선에선'콩나무 시루' 현상이 극심하다. 첨단 9번·풍암 6번· 진월 7번· 문흥 18번·봉선 37번 등이다.

유제택(32·회사원·광산구 운남동)씨는 "금남로 문화의 전당 인근 직장에 출근하려면 지선버스를 타고 나와 첨단 9번으로 갈아타는데 하도 많은 승객들이 몰려 사우나를 하곤 한다"며 "2~3번 갈아타다 보면 무료 환승이 안될 때가 많고, 30분 거리가 1시간 이상 걸릴 때도 있다"고 하소연했다. 백모씨는 "출근길 금남 85번 버스에서 소매치기를 당했다"고 글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다.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 한 달째인 21일 오후 무등산을 찾은 시민들이 증심사 입구에서 줄지어 시내버스에 오르고 있다. 시민들은 환승 불편과 일부 노선의 '콩나물 버스' 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교통카드로 본 광주 대중교통 이용 추이

일자별	계		시내버스		지하철		마을버스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개편전 12.20(수)	403,551	100	387,365	96.0	14,878	3.7	1,308	0.3
12.21(목)	414,090	100	381,102	92.0	28,735	6.9	4,253	1.0
12.25(월)	212,990	100	191,315	89.8	19,091	9.0	2,584	1.2
12.29(금)	405,437	100	367,607	90.7	31,380	7.7	6,450	1.6
01.02(화)	364,370	100	326,828	89.7	30,182	8.3	7,360	2.0
01.06(토)	274,925	100	245,462	89.3	25,255	9.2	4,208	1.5
01.10(수)	392,835	100	355,347	90.5	31,558	8.0	5,930	1.5
01.14(일)	206,648	100	186,217	90.1	17,625	8.5	2,806	1.4
01.16(화)	393,612	100	356,566	90.6	30,941	7.9	5,642	1.5
개편후 일일평균	334,614	100	302,731	90.5	26,708	8.0	5,175	1.5

◇친절해졌나=일부 버스기사 인사도 잘하고, 노선안내도 잘한다는 글이 광주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종종 오르고 있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에 버스 승강장 주변 불법주정차로 인해 시간을 빼앗긴 기사들이 난폭 운전을 하는 경우가 눈에 띄고 있다.

하지만 한때 하루 30건에 달하던 교통카드 환승 오류나 요금불만 등은 20일 현재 거의 없어졌다. 노선문의도 꾸준한 홍보와 시민들의 적응으로 1일 800여 건에서 130여 건으로 줄었다.

김유정(여·24·남구 봉선동)씨는 "기사분들이 많이 친절해졌다"며 "어르신들은 불편하겠지만 환승을 잘 이용해서 예전보다 이동시간이 덜 걸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무엇을 개선해야 하나=시민들은 환승 불편과 '콩나물 시루' 버스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승객이 적은 노선에서 남은 버스를 많은 쪽으로 돌리고, 필요하면 운행버스를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3번 이상 환승지역에 대한 대체 노선 개발, 양동시장·금남로 상가 등 도심 상권에 대한 배려, 급행 간선 노선의 확대, 승강장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 등도 시급한 과제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빙상장·눈썰매장 어린이 사고 조심

광주·전남 3명 사상

빙상장과 눈썰매장에서 놀던 어린이들이 잇따라 다치거나 숨졌다.

주말인 지난 20일 오후 2시30분께 광주시 염주동 종합체육관 빙상장에서 스케이트를 타던 P(8·O초교 2)양이 스케이트를 타다 넘어져 왼손 새끼손가락이 절단됐다.

P양은 스케이트를 타다 넘어지면서 빙판에 손을 짚는 순간 지나가던 다른 사람의 스케이트 날에 의해 손가락이 잘렸다. 박 양은 사고 이후 119구조대에 의해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손가락 봉합 수술을 받았다.

또 이날 오전 11시께 순천시 모 관광농원 눈썰매장에서 눈썰매를 즐기던 순천 Y초등학교 5학년 J(12)양 이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

경찰은 동료 학생들과 체험학습차 눈썰매장을 찾은 J양이 눈썰매를 타고 내려온 뒤 갑자기 쓰러졌다는 동료 학생들의 진술과 특별한 외상이 없는 점으로 미뤄 심장마비로 숨진 것으로 보고, 유족과 인솔 교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12일에도 여수시 화양면 한 눈썰매장에서 초등학생 S(12)군이 놀이기구를 타다 갑자기 숨졌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겨울 스포츠는 안전사고 등이 뒤따르는 만큼, 사고를 대비해 철저한 안전점검 및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신원 불명 40대 분신자살

21일 오후 6시40분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 D빌딩 4층 계단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남자가 휘발유를 끼얹고 분신, 현장에서 숨졌다.

당시 이 빌딩에 있던 목격자는 "40~50대로 보이는 한 남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횡설수설하던 중 갑자기 휘발유를 계단 바닥에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고 말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은 이 남자의 몸에 소화기를 뿌리며 불을 껐으나, 이 남자는 온 몸에 중화상을 입고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이 남자가 분신한 곳이 모 종교단체 사무실 인근인 점으로 미뤄, 이 단체와의 연관성 여부 등을 놓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중이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가수 유니 목 매 숨져

최근 우울증 증세

21일 낮 12시50분께 인천시 서구 마전동 모 아파트 22층 가수 유니(여·26·본명 허윤·사진) 집에서 유니가 2m 높이의 자신의 방 문틀에 목을 매 숨져있는 것을 외할머니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외할머니는 경찰에서 "오전에 손녀가 잠을 자고 있어 다른 가족과 함께 교회에 갔다가 혼자 먼저 집에 돌아와 보니 목을 매 숨져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씨가 최근 우울증 증세를 보였다는 가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경희대학교 연극영화과 출신인 유니는 1996년 KBS 드라마 '신세대보고서 어른들은 몰라요'로 본격 연기자로 데뷔했고, 영화 '세븐틴'(1998년) '질주'(1999년) 등의 주·조연을 맡았다. 지난 2003년 앨범 '가'를 통해 가요계에 데뷔해 댄스 가수로 인기를 끌었으며, 22일 3집 '솔로 판타지' 발표 후 본격 컴백 무대를 준비하고 있었다. 22일 오전부터는 뮤직비디오 촬영이 예정돼 있었다.

한편 그는 2005년 KBS 2TV '이홍렬 박주미의 여유만만'에서 "미혼모의 딸이었다"며 "어린 시절 외할머니와 단둘이 살아야 했고 초등학교 시절 아빠가 없다는 사실이 힘들었다"고 고백, 눈길을 끌었었다. /연합뉴스

나우챔

승용차 충돌 6명 사상

21일 새벽 5시40분께 장성군 남면 분향리 시목마을 앞 국도에서 김모(여·29)씨와 이모(여·61)씨의 승용차가 정면충돌, 김씨가 숨지고 이씨 등 5명이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장성=고재빈기자 jbgo@

쌍나팔

중국인, 훔친 카드로 명품 사다 '덜미'

○…50대 중국인 회사원이 신용카드를 훔쳐 백화점에서 명품을 사다가 덜미.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중국인 이모(53·후난성 빈저우시)씨는 지난 20일 오후 5시20분께 광주시 서구 광천동에서 박모(여·26)씨의 승용차 문을 열고 100여만 원의 금품이 든 핸드백을 훔친 뒤, 백화점 두 곳에서 명품 허리띠 2개와 옷 등 180만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했다는 것.

○…이씨는 분실신고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이상히 여긴 직원의 신고로 붙잡혔는데 "길에서 주운 카드"라며 부인. /이승배기자 lsb54@